화학경기의 지수화를 시도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화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태반이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니 대부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골치아픈 것을 왜 묻느냐고 짜증을 낼지 모른다.

80년대 말이후 기업의 주식공개가 줄을 잇고 화학기업들도 하나둘 상장에 들어섰지만 화학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조차도 화학이 무엇이고 화학산업이 어떠한 산업인지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드문 실정이다.

이처럼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을 가지고 화학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그리고 은행 · 증권 등 금융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조차도 화학 아니 화학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상태에서 투자나 자금공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면, 화학산업이나 화학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되고 그만큼 불이익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도 된다.

또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화학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몽매한 상태에서 소문이나 시세흐름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사뭇 투자의 쓰라림을 맛볼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국내 화학산업이 규모화되고 수출산업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반 국민이나 금융권 종사자 그리고 화학주식 투자자들의 무지몽매함이 계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화학산업계에 커다란 악재로 표출될 가능성도 부인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화학이나 화학산업에 관련된 여러가지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 노력은 화학산업 관계자들이 앞장서야 할 부분이다.

이에 화학경제연구원은 화학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화학주식 투자자 그리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쉽게 화학산업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화학경제의 내용을 혁신, 각 산업별 지수화를 시도했다.

화학산업을 에너지 · 석유화학 · 플래스틱 · 정밀화학 · BIO CHEM · 무기화학 · 화학섬유 등 7개부문으로 분류해 각부문별 생산 · 가동 · 판매를 지수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지수화는 화학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화학산업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물론 화학기업 경영자층에게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도 전체 화학산업과 각 부문의 생산활동을 체크하고 여기에 맞춰 경영을 효율화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이 아니다. 화학산업과 관련된 전자 · 반도체 · 자동차 · 건축 · 제지 · 고무 · 금속 · 식품 등 수요산업의 생산활동도 지수화함으로써 적은 인원으로 산업 전부문을 체크해야 하는 불편과 비능률을 개선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화학산업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수요산업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화학기업 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화학산업 및 수요산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화학산업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작업에 화학산업 관계자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기대한다.

아무쪼록 화학경제의 산업경제지로의 전환이 화학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착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화학저널 1994/8/1>